

밤길 밝히고 CCTV 늘리고... ‘안전 광주’ 만들기

달피·덕림·고려인마을

광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도입

자율방범대와 협력 지속 운영

도심의 미관을 가꾸는 동시에 범죄 예방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안전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잠재적 범죄발생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 셉테드(CPTED)
범죄 예방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나 주거환경을 바꿔 사람들의 통행을 늘리는 등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



광주시는 지난 24일 자치구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남구 월산동 달피·덕림마을 ▲광산구 월곡2동 고려인마을 2곳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월산동 달피·덕림마을은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다 낡은 담장과 공·폐가 등이 산재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월곡2동 고려인마을은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 밀집지역으로, 외국인과의 원주민 간 색다른 문화와 생활로 인한 오해와 범죄 불안감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해 올해 12월 말까지 LED 보안등, CCTV, 비상벨,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특

수 형광페인트 도포, 낡은 담장 도색 등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거주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 스스로 범죄 예방에 앞장서도록 주민협의체와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마을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권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 서구 화정3동에 1억원을 지원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LED보안등 9개, 비콘 82개, 안전마을 안내사인물 3개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노동센터 출장상담소 알바 피해 구제 호응

광주시는 최근 전남대에서 시가 운영하는 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청년·청소년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소 알바 피해 구제 호응’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찾아가는 출장상담소’를 마련해 각 센터의 공인노무사가 직접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구제절차를 상담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노동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2016년 문을 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최저 금리 벤처기업자금 지원

업체 대출금리 1% 부담

광주시는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자금 75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벤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대출금리를 제시한 은행과 협약해 최저금리로 운용하며, 시에서 이차보전 2.3%를 지원해 기업체의 실질적 부담은 1% 내외다.

지원 업종은 벤처기업과 창업 5년 이내 광 관련기업이며 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31일부터 융자지원 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도상환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갖춰 기술보증기금에 방문해 접수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지정은행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이나 광주경제고용진흥원(www.gep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벚꽃 피는 지산유원지 클래식 향연

내일 무등파크호텔 특설무대

광주시 동구는 다음달 1일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지산유원지에서 고품격 음악·문화공연을 연다.

이는 동구의 명물 지산유원지를 광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동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문화채색’ 사업의 하나다. 문화채색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공연단체가 정기적으로 지산유원지에서 공연을 펼치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행사로 4월 1일 지산유원지 무등파크호텔 특설무대에서 ‘벚꽃, 봄의 향기’라는 주제로 클래식 향연이 펼쳐진다.

지산유원지의 상징인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젊은 연

주자들로 구성된 전문공연단체인 ‘어썸오케스트라&콰이어’의 아름다운 선율과 중장단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동구는 지산유원지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보리밭의 식업 우수지구 선정, 카페의 거리 조성, 모노레일 운행 재개 등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지산IC진출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20년 넘게 방치됐었던 지산유원지가 최근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면서 “음악과 공연 등 다양한 문화채색 사업을 통해 지산유원지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신도불이장터 신명나네”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 빛고을타운은 최근 타운 야외광장에서 광주 남구청과 함께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복지재단 제공>

봄나들이 불청객 진드기 조심하세요

광주시는 기온이 오르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쯤쯤가무시증 등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4~11월에 발생하는 SFTS와 가을철 특히 많이 발생하던 하나 연중 발생을 보이고 있는 쯤쯤가무시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위에 눕지 않아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 사용도 도움이 된다.

또한, 야외활동 시 입었던 옷은 반드시 털어 세탁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를 해야 하며 머리카락, 귀 주변, 무릎 뒤 등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는 잠복기인 6~14일 후부터 38℃ 이상 고열, 구토,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이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진드기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풍영정천 기름유출’ 제보 포상금 300만원

광주시는 지난 25일 발생한 풍영정천 유류 유출 원인 파악을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광주시는 풍영정천에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를 유발한 유류 유출 원인자 색출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배수관을 통해 유류를 방류했거나, 몰래 풍영정천에 유류를 버린 업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남산단 주요 도로 10개 지점에 유류 유출 관련자 제보 관련 현수막을 걸었다.

그동안 광주시는 풍영정천 유류유출 원인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고 당일에는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투입하고, 현재 시 환경정책과, 민생사법경찰과가 함께 4개 단속반(8명)을 꾸려 하남산단 내 자동차, 금

속제조업체, 차량정비업소 등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일 기름유출이 멈추고 배수관 등에 유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원인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사고일 풍영정천에 유출된 유류가 다행히 영산강까지 확산되는 것은 막았지만, 방제활동을 위해 현재까지 연인원 350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의로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며 “이번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적극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웅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 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웅5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건추천

■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역 2분
▶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
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8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총 33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운전역 1분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
토 44평, 건 47평
수완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